









## 待

第二回 文學春秋  
新人作品當選詩

詩·書·金·字



多角形의 内室에

窓을 열고

꽃이 진

달력을

우리들은

直面하고

있는 것일까.

하루는 韓忠憲은 謂을 오르는 期待...

우리들은

外而하고

있다.

이제는 터져고

한다.

우리들은

外面하고

있다.

새로이 강변에 배를 띠우며

회미한 燈籠 아래 앉았던

우리들의 游水처럼

마실 수 없는 것이 되었다.

우리들은 아침이야 한다.

그것들은 離愁와 함께

우리들은 過去를

마실 수 있는 것이다.

우리들은 過去를

마실 수 있는 것이다.